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22 호 현대불교
2020년 12월 23일(음 11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마음으로 딱 쥐고 있지 말고 하루살이로 그냥 찰나찰나 놓고 가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한마디 더 해야겠군요. 예전부터 천주교에서나 불교의 스님네들이 묵언을 많이 하고 갑니다. 3년을 하기도 하고 1년을 하기도 하고 한 철을 하기도 하고 몇 달을 묵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위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묵언이라는 게 있으면 묵언 아닌 게 붙습니다. 우리가 찰나찰나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죠. 우리가 발을 떼고 올 때에 짊어지지도 않고 또는 거기에 애착도 없이 그냥 그대로 걸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을 했어도 함이 없고 아니 했어도 아니 한 게 없고 해도 한 게 없는데, 묵언을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또 거기에 걸리는 거죠. 모두가 묵언을 한다는 데서 걸리고 안 한다는 데서 걸리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고정되지 않고 찰나찰나에 그 모두가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한 것이 없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혼자 한 게 없고 내가 한 게 없죠.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언이라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죠.

그러니 모두가 그 도리를 알려면 그저 딱 따구리가 나무통 뚫듯이 그냥 무조건, 무조건 해야죠. '있느냐 없느냐, 아리송하다, 못 믿는다, 이걸 더 캐야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어린애가 아무 걱정도 없이 걸음마 배우듯 말입니다. 어린애가 넘어질까 봐,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발을 못 뗍니까? 걸음마 배우는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을 떼어 놓기만 한단 말입니다. 애들이니까 뒤에 보호자가 있거든요. 보호자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자기는 어린애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발을 떼어 놓듯 해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공부할 당시에, 사실 공부라고 할 것은 없죠, 생활이 공부니까. 6·25때 강을 끼고 싸우는 걸 봐서 그런지 그걸로다가 비유해서 스크린처럼 나오는데 말입니다, 어느 때인지 강을 사이에다 두고선 이쪽 군인하고 저쪽 군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쪽 저쪽이 싸우면서 죽이는 것을 보면서 '어유! 부처님 한마음인데 어떻게 싸우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순간적인 생각에 그냥 그것이 모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둥그며니 나 하나만 서 있는데 내가 얼마나 조그맣던지, 요만한 게 그래도 행전은 치고, 하하하, 키 긴 거 하나를 질질질질 끌고서 그냥 혼자 거길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바로 싸운다, 싸우지 않는다 하는 양면이 없는 자리구나.' 이런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양면이 없는 자리, 즉 양면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소켓에 끼우기만 하면 그냥 불이 들어올 뿐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 공부하는 작업이 그 소켓에 끼우는 작업이에요. 둘이 아니게 그 소켓에 맞게끔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끼울 수 있는 그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불은 저절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마음 한마음 뿌리,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그냥 타 버리는 거와 같아요. 타 버리는 거와 같고 용광로에 넣어서 녹아 버리는 거와 같고, 모두가요.

그러니까 내가 업이 있네, 무슨 번뇌 망상이 일어나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번뇌 망상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요, 애고가 공부를 크게 할 수 있는 재료니까요. 우리 모두가 '어휴,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가 닥치는 것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실 거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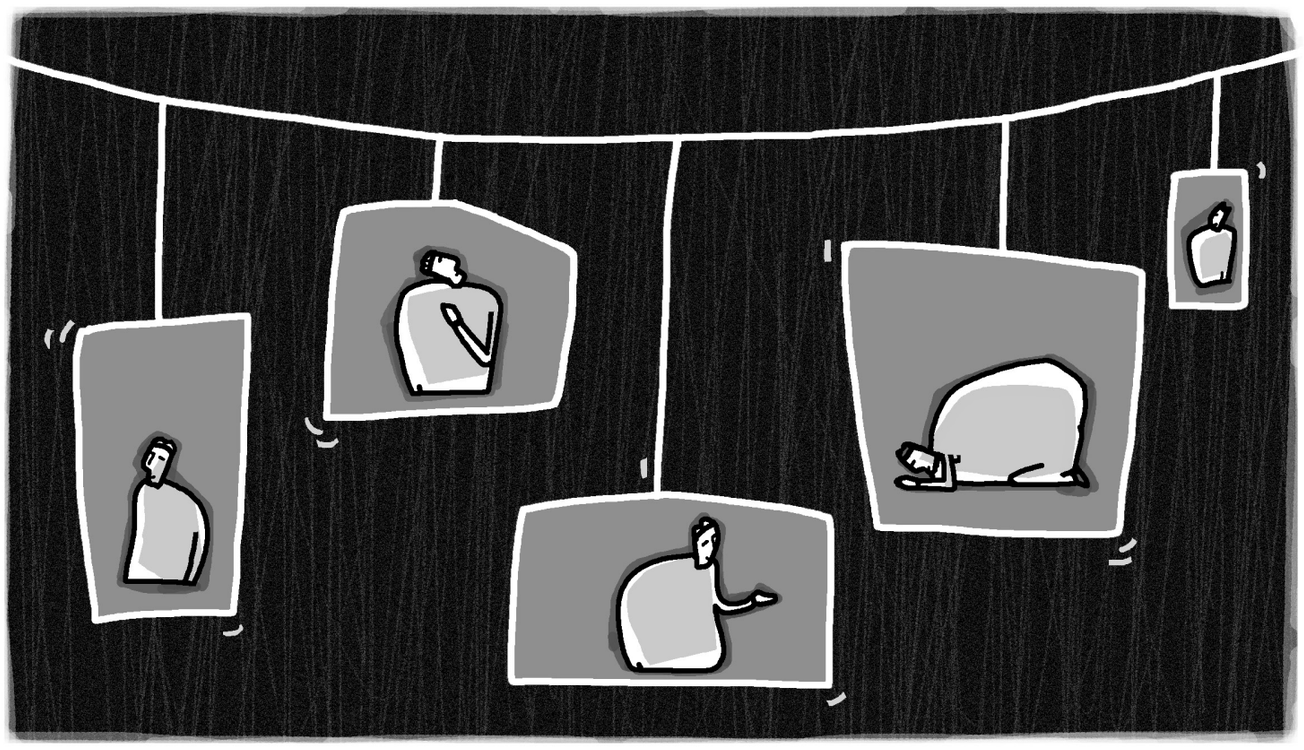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지원 신행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이끌어 주시고 선원 개원을 위해서 이곳 청주까지 왕림하시어 감로법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는 스님의 법문 중에 함이 없이 하는 것과 여여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으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여여하다는 것을 화두로 삼고 공부를 시작하던 중에 온 세상이 물보라 속에 물레방아가 돌고 있는데 큰 완력기 하나가 있어 그것을 힘껏 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힘을 안 들이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생각만 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함이 없이 해 보니 정말 너무나도 잘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여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생활과 운동할 때 해 보니 배 이상의 효과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끄달리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큰스님 아유,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여여함을 아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아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함이 없이 하신다면 원수질 일도 없고 또 애탄지탄하며 착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살이로 사랑을 하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원력을 세워서 우리가 한 찰나의 사랑도 세세생생의 사랑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일 겁니다. 그러니 말로 그냥 아무리 열 마디 백 마디 해 봐도 아니 될 때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아셔야 될 거니까, 여기 토요일 일요일마다 들르셔서 스님하고 토론도 하시고 비디오도 보시고 법회도 하시면서 자꾸 폭을 넓혀 가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너무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질문자2(남) 저는 현재 법형제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지원 불자들이 한마음 법을 공부하는 데에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늘 수행 과정에서 방하착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놓고 생활해야 곧 참선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방하착을 방하착이다 하면 방하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모두가 참선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본래 진리라는 것이 고정된 게 없이 돌아가니까 그대로 거기다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딱 쥐고 있지 말고 하루살이로 그냥 찰나찰나…. 놓고 가란 말 안 해도 지금 놓고 가는 겁니다. 모두들 놓고 가면서도 그 마음으로 당겨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자꾸 걸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래 놓고 가는 건데 마음으로 놓고 가질 않으니까 "그것 좀 놔라, 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이차적으로 "야! 네 뿌리에다 놔라. 네 뿌리만이 너를, 네 나무를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뿌리에 믿고 놔라, 놔라." 영 안 놓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 내 뿌리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뿌리만이 나를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믿고 무조건 '너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놔라 이겁니다. 그것이 방편 중에 제일 첫 번 관문입니다. 제일 지금 필요로 하는 게 그 겁니다.

질문자2(남)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나오는데 81년도 퇴옹 성철 큰스님께서 종정으로 추대되시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의 뜻이 같은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랬기 때문에 "공도 색도 둘이 아닌 까닭에 공은 공대로 있고 색은 색대로 있느니라." 하는 걸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쉽게 말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한다면 이치가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둘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해야 되겠죠?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뿌리는 한 뿌리이다. 뿌리는 한 뿌리고 생명은 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모습은 다 다르다. 각계각층이 말

☞ 18면으로 계속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